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2월 7일(일) 제1567호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대차교회에서 진행된 SNS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 온누리교회 장로 64명 장립

2025 장로장립예배  
명예장로 3명, 시무장로 61명

온누리교회 신임 장로 64명이 세워졌다. 12월 6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5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명예장로 3명, 시무장로 61명이 장립됐다.

2025 장로장립예배는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별찬양,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설교, 최이정 장로 장립자 간증, 합심기도, 서약, 세족식, 이재훈 위임목사 안수기도 및 선포, 이재규 장로 권면, 크룩스 특송, 선물 증정, 장로의 기도와 답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장로들은 '2025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치른 장로고시를 통과했다.

##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역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Ditwah)' 피해 지역에서 긴급구호를 한다. 스리랑카는 현재 저지대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침수, 건물 붕괴, 연쇄적 산사태가 발생해서 일상이 마비된 상황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식수, 식품, 위생용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치료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 피해 지역 긴급구호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6

### 당회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 기쁨홀  
대상: 전임교역자, 시무, 사역, 합동, 명예장로  
안간: 2026년 당회운영위원 선출, 2026년 예산안, 장로는퇴식

### 제직회

일시: 12월 14일(일) 2부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모든 제직  
안간: 2026년 예산안

### 공동의회

일시: 12월 14일(일) 3부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간: 2026년 예산안

## 대학청년부 겨울사역 '사랑앓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지역 교회, 군부대 등 섬김

올겨울에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간다. 2025 대학청년부 겨울사역이 막 올랐다. 지난 12월 6일(토)부터 '사랑앓나눔'이 시작됐고, 12월 20일(토)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이어진다.

'사랑앓나눔'은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교회 등과 함께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온누리교회 이름 대신 지역 교회와 기관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

달한다.

올해 '사랑앓나눔'에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1,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웃 1,075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지역 교회와 군부대, 그룹홈, M센터 등지를 방문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서울시 서초구, 강동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파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음성군, 옥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등 30여 개 지역

에서 한다. 이웃 초청 잔치, 어린이 성경학교, 마을 전도, 이주민 연합 크리스마스 예배, 군장병 초청집회,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새벽송, 성탄 전야제 행사, 노방찬양 등을 한다.

지난해 '사랑앓나눔'에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955명이 참가했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교회 등과 연합해서 이웃 1,185가구에 쌀과 김치, 생필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에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2,324명이 전국 23개 지역 교회, 군부대, M센터 등지를 찾아가 이웃 초청 잔치, 어린이 성경학교, 마을 전도 등을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CGN 다큐 영화 '무명(無名)' 수상

제17회 한국기독교연론대상  
해외선교부문 최우수상

CGN이 제작한 다큐 영화 '무명(無名)'이 한국기독교연론인연합회(CJCK)가 주최한 '2025 한국기독교연론대상 해외선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2월 4일(목) 새문안교회 언더우드홀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현재 영화 '무명(無名)'은 영화 1:1 결연 캠페인 '무명(無名)의 복음 릴레이'와 '찾아가는 상영회'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무명(無名)의 복음 릴레이'는 후원금 1만 원당 1명의 선교사가 영화 '무명(無名)'을 볼 수 있도록 CGN이 초대하는 캠페인이다. '찾아가는 상영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 재소자, 해외 선교사와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지역 교회나 교도소, 지역 영화관 등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캠페인이다. 문의: 02-3275-9363

## 이웃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 '열린순예배'

온누리교회가 이웃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와 '열린순예배'가 이어진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성도들이 만든 그림과 사진으로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다. 이벤트에 참여한 60명을 선발해서 그 성도들의 이름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쿠키와 카드를 전달한다. 축제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크리스마스 카드(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디지털 아트 등)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DM이나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5),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

층, 소셜 네트워크 팀 이경희 사역자)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연말까지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초대해 영화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순예배를 드리면 된다.

2025 성탄 예배는 12월 24일(수)과 25일(목) 드린다. 수요목양예배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12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성탄찬양예배는 12월 25일(목)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드린다. 서빙고 기준 1부 오전 9시, 2부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에 본당에서 드린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믿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몸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성육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육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Logos)’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이루었던 헤브라이즘(Hebraism), 히브리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 호크마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호크마’라는 단어 대신 ‘로고스’를 사용한 이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인 책이냐에 의해 설명됩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로고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몸을 취하신 ‘성육신’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로고스이신 분이 왜 육신이 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동일한 말씀이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분이 만물을 구원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만물이 처한 곤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이성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말씀이신 그분을 반영하는 존재,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불순종하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인간은 사망의 법아래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망의 법에 속한 인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을 대신해 고난 받고 구원받으려고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 모든 이에게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 동정녀 안에 자신의 몸을 예비하도록 하였고, 그 몸을 통해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독특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육신’이라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육신을 뜻하는 헬라어 ‘사크스(Sarx)’는 ‘육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당시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들이 악하다고 여기는 육체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거하셨다’는 단어는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이주하며 거주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육신의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육체 덩어리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연약한

## 성육신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14~18

“그분은 하나님이지기에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며, 인간이지기에 길이 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삶의 목적지와 길이 될 때 말씀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아기로, 애처롭게 우는 아기로,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는 사랑’과 ‘그와 같이 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일부 주는 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놀라움은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죽음으로 만물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그 권세를 깨뜨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셔서, 모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존재이신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능한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가능한 몸이 되심으로 그분이 만인을 대신하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의 죽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만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시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별한 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본질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역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모르고, 인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아무런 접촉점이 없다면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분이여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주후 451년까지 갔습니다.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500명

이상의 감독이 함께 모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참’이란 말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지요, 그분은 육신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회의에서 현재 이집트 지방인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중시했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더 중시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고백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의 존재와 역사,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했고, 논쟁했고,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롬 5:8).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육신하신 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집행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육체 덩어리와 같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에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위기와 곤경, 모든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분의 오심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기에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며, 그분은 인간이지기에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삶의 목적지가 되고, 길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성육신하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 조력자살이 정말 자비로운 선택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 보자.

“조력자살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선택이야. 누군가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으로 끝낼 수 있어야 해.”

최근 몇 년 동안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동정 어린 선택지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자비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이유 네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조력자살은 환자에게서 진정한 돌봄을 빼앗는다. 자살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때때로 느끼는 우울감, 무력감, 두려움, 절망감, 혹은 가치 없음의 감정을 ‘치료하려는 것’ 처럼 보일 뿐이다. 자살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대신 그 사람들을 죽인다. 조력자살은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종종 옹호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혹은 자살성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선택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살 요청이 그렇듯, 조

력자살 요청 역시 두려움이나 우울감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을 요청한 사람들의 98%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처방받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조차 받지 않았다. 사람이 고통스럽거나 두렵거나 정신적·정서적 고통 속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의 존엄성을 확인해 주고, 우리가 가진 의료 자원을 사용해 육체적 고통을 관리하도록 돕는 게 맞다. 치명적인 방식의 대응은 해결책이 아니다. 조력자살은 진정한 돌봄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일 뿐이다.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대신 조력자살은 생명을 끝낸다. 조력자살은 진정한 자비를 효율성으로 대체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진다.

둘째, ‘죽을 권리’는 결국 죽어야 할 의무가 된다. 일단 자살이 합법적 선택지가 되면 환자들은 종종 자살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 비용은 보험이 지원하지 않지만, 생명을 끝내기 위한 약물은 1달러 20센트만 내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압력을 행사한다. 의료비 부담을 원하지 않거나, 상속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

나, 그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조력자살은 누구에게나 위협하지만, 이미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협하다. 조력자살은 삶을 경제적 계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는다.

셋째, 조력자살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의사는 치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의사를 죽음의 행위에 동참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환자와 의료 전문가 사이의 신뢰가 깨진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병원 방문을 피했던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러 가기를 두려워한다. 치료를 받는 대신 생명이 끝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취약한 사람들이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과 돌봄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의사는 아프거나 우울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로 이어진다.

넷째, 때때로 말기 진단은 틀릴 수 있다. 2013년 스위스의 조력자살 기관인 디그니타

스(Dignitas)는 62세의 ‘피에트로 다미코’라는 남성의 자살을 도왔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가 실시한 부검에서는 그런 병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잭 케보키언 박사는 130명의 죽음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관여한 이들 가운데 69명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단지 25%만이 말기 질환을 앓은 거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검에서 다섯 명은 유의미한 질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력자살은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택은 다른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끝내는 선택이다. 실수가 흔한 세상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누군가 조력자살이 자비로운 일이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조력자살, 환자의 진정한 돌봄을 빼앗는다.”  
“‘죽을 권리’는 ‘죽어야 할 의무’가 된다.”  
“조력자살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말기 진단은 때때로 틀릴 수 있다.”

원문: 콜스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신앙과 AI

## AI가 바꾸는 세상 속에서 영성을 지키는 법



유혁 교수  
(강촌공동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온누리세계관학교)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미래 기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글쓰기, 자료 조사, 번역, 행정 업무, 심지어 영상 제작까지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도 척척 해내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계속 가속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동작(action)을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 기반의 추론형 AI가 본격화되고, 금융·교육·행정 등 모든 삶의 영역을 뒤흔들고 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AI 시대에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성과 정신을 지켜야 하는가?”

최근 MIT 연구진은 AI 사용이 우리의 뇌 활동과 사고 과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구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에게 글을 쓰도록 한 뒤, 본인이 작성한 문장을 다시 인용해 보라고 했다. ChatGPT를 사용한 그룹은 83.3%가 자기 글의 문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더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완

벽하게 인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AI가 대신 생각해 주는 만큼 우리의 뇌가 일을 덜 하기 때문이다.

뇌파(EEG) 분석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글을 쓴 사람들의 뇌에서는 ‘내적 흥미,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뇌 연결망이 활발히 점등됐지만, AI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뇌는 47%가량 신경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AI가 편리한 만큼 우리의 사고와 기억력은 무너지고, 글은 ‘잘 써진, 그러나 영혼 없는’ 문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I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AI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우리의 영성과 사고력을 지킬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은 크리스천이 AI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첫째, ‘먼저 사람이 생각하고, 그다음 AI를 사용하라.’ 간증문, 기도문 등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AI를 사용하면 우리의 영성은 약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머리로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쓴 문장을 다듬고, 더 나은 표현을 찾아보고,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는 ‘협력자’로서 사용할 때 AI는 가장 빛을 발한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며 씨름할 때 영성과 지성은 더욱 단단해진다.

둘째, ‘AI는 답을 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과외선생님으로 활용하라.’ AI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환각 현상은 Agent의 도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과외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이 문장들을 다른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급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좋은 ‘과외선생님’이 된다. AI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서 루터와 칼뱅의 해석 차이를 비교해 달라거나, 본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AI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지, 해석을 ‘대신’ 하게 하는 게 아니다.

셋째, ‘AI에 맡길 것은 맡기되, 판단과 분별은 반드시 사람이 하라.’ 자료 조사, 문헌 정리, 반복적인 행정 업무 등은 AI에 맡겨도 된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비전교회나 선교 현장에서는 AI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다국어 자동 번역으로 선교에 활용하거나, 온라인 신앙 상담을 지원하는 플랫폼도 이미 등장했다. 그러나 결정과 분별, 깊은 영적 상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을 AI가 대체하는 것은 위협하다. AI는 감정도

영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AI를 숙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 상담과 같은 영역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의 영역을 AI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AI가 어떤 내재화된 가치체계를 가졌는지,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평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하면, AI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 어떤 AI는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답변을 거침없이 한다. 이러한 점은 성경적 관점에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교회의 기도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AI가 점점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인도하심, 사람의 마음을 향한 공감과 사랑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기술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AI의 편리함 속에서도 말씀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AI가 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영성의 깊이를 지켜낼 때,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AI 시대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다행 9:31).

##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 0과1의 세상, ‘하나님의 형상’ 지키는 예술 경험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우울한 날 추천해 줄 좋은 곡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소곡이나 돼지곡이가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유머다. 필자와 같은 음악 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울할 때 들어야 하는 정해진 ‘처방 곡’은 없다. 이는 마치 “태교할 때 어떤 음악을 들어야 좋을까?”라는 질문 같다. 태교에 가장 좋은 음악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이다. 그것이 트로트든, 가요든, 클래식이든, CCM이든 엄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때 ‘모차르트 이펙트(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지능이 높아진다)’가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었다. 태아에게 모차르트를 들려주면 IQ가 좋아진다는 믿음은 부모들 사이에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훗날 이것이 레코드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지능을 높이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변함없나 보다. 수백 년 전 그림이나 유물을 보아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교육열은 늘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으니.

바야흐로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 경제, 문화, 의학 등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의 시대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필자는 단연코 ‘적응력’을 꼽는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롭게 학습하는 능력 말이다.

AI는 이미 방대한 정보 처리와 암기, 심지어 사람의 상호작용까지 모방하는 경지에 이르

렀다.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창조적 생산력을 갖도록 돕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술 경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선물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 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출 35:31~33).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게 하셨다. 여기서 예술 활동은 단순히 손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각과 지혜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과정이다.

## “AI는 0과 1의 조합으로 오차 없는 ‘정답’을 산출하지만 아이들의 서툰 선 하나에는 ‘영혼의 떨림’이 담겨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 뇌는 논리적인 ‘생각’ 이전에 ‘감각’을 통해 세상을 먼저 인식한다. 풍부한 감각 경험은 뇌의 시냅스(신경 연결망)를 복잡하고 탄탄하게 만들며, 이것이 곧 창의적 사고의 견고한 토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창1:31)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하는 감각을 허락하셨다.

예술 활동은 뇌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그림을 그릴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색과 형태를 보는 시각, 붓을 쥐는 운동 기능, 계획을 세우는 전전두엽과 감정을 표출하는 변연계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예술 활동은 뇌의 감정 조절 회로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건강한 정서 흐름을 회복시켜 준다. 또한 예술을 즐길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아이들에게 ‘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길 줄 아는 힘, 즉 내적 동기를 강화해 준다. 많은 이들이 AI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간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AI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AI가 할 수 없는 디테일, 감정의 세밀함, 즉 아날로그적 접근이 더욱 필수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영화 ‘기생충’을 기억하는가? 오스카상을 휩쓴 이 영화에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온다. 반지하에 사는 주인공 가족은 천장 근처 화장실 변기 위에서 겨우 잡히는 남의 집 와이파이를 찾아 헤맨다. 반면, 럭셔리한 저택에 사는 부잣집 아이는 넓은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인디언 모자를 쓴 채 빗속을 뛰어다니며 논다. 디지털 신호를 찾아 헤매는 삶과 자연 속에서 아날로그적 유희를 즐기는 삶의 대비. 봉준호 감독은 마치 다가올 미래의 계급과 가치의 차이를 예견한 듯하다. 진정한 창의성과 감성은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온종일 책상에 온몸을 바쳐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끼고 표현하는 아날로그적 예술 활동에서 나온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시 139:14).

성경은 인간을 ‘기묘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말한다. 여기서 ‘기묘하다’는 것은 기계적인 정밀함이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의미한다. AI는 0과 1의 조합으로 오차 없는 ‘정답’을 산출해 내지만, 우리 아이들이 붓을 들고 그어 내리는 서툰 선 하나에는 기계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영혼의 떨림’이 담겨 있다. 어쩌면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매끈한 데이터가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자신만의 온기로 세상을 만져 보는 경험 아닐까? 비 오는 날 와이파이 신호 대신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흥얼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 기계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의 존엄이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글그림 명난희

## 95. 마라톤(2)



##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좋아요〉 12월 1일 본문 ‘여호수아 11장 5~8절’

1.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다 함께 모여서 진을 쳤던 물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실로암
- ② 홍해
- ③ 메롬
- ④ 요단

2. 많은 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 ① 협상해라
- ② 도망가지 말라
- ③ 동굴에 숨어라
- ④ 두려워하지 마라

3. 여호수아는 적군과 그 나라 왕들을 몰살했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한 일인가요?

- ① 자신의 생각대로
- ② 백성들의 투표로
- ③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로
- ④ 이웃 나라 왕의 조언대로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엄마와 함께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매주 단둘이 밖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 즐거웠다. 때로는 TV를 보고 싶고, 쉬고 싶었는데 엄마 덕분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엄마가 하나님 알려주는 일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 그래서 더욱 행복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엄마와 함께해서 그런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죄

를 지으면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번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너무 아쉬웠다. 만약 양육을 또 하게 된다면 엄마와 다시 하고 싶다. 엄마와 함께하는 양육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양육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졌기 때문이다. 엄마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엄마랑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 더욱 좋았어요. 앞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게요!”



최라엘 학생  
(대전 차세대)

# 절망의 바다 앞에서 울려 퍼진 믿음의 노래

루카스 크라나흐의 <홍해를 건너다>, 로시니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중 ‘기도’



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이수공동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앞은 캄캄한 바다요, 뒤에서는 맹렬한 위협이 쫓아오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이 소진되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찰나,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16세기 독일 종교개혁의 핵심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1472~1553)의 작품 <홍해를 건너다>(1530)와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Gioachino Rossini)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중 아리아 ‘기도’는 이 절망과 구원의 신앙적 순간을 시각 예술과 음악 예술로 완벽하게 포착해 낸 걸작이다. 이 두 작품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한 깊은 신앙적 메시지를 나누고자 한다.

## 홍해, 구원으로 향하는 기적의 통로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 <홍해를 건너다>는 성경 <출애굽기> 14장의 극적인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이 그림이 주는 가장 강렬한 인상은 바로 그림을 대각선으로 가르는 ‘대조’다. 그림의 왼쪽, 솟아오른 물의 벽 사이로 난 마른 땅을 따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평온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으며,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오직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보자.

모세는 누구일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지팡이가 바로 홍해를 가른 자임을 알려주고 있다. 긴장된 장면 안에 아이들과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아이부터 짐승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며, 그들이 가진 순수한 믿음과 충성심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의미한다. 크라나흐가 마르틴 루터의 동지였음을 상기할 때, 이 평온한 행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들에게 홍해는 두려움이 아닌, 구원으로 향하는 기적의 통로였다.

반면, 그림 오른쪽을 보자. 거대한 물줄기와 바위, 그리고 폭풍우에 휩쓸려 무너지고 있는 이집트 군대의 모습은 극도의 혼란과 파멸 그 자체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신식 병거는 바위가 빠진 채 흙탕물에 잠겨 있고,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물에 휩쓸려 죽어간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의 <홍해를 건너다>.

## “절망의 바다 앞에서 울려 퍼진 믿음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통로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다.

크라나흐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적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회색 지대가 아니며, 구원과 심판은 명확하게 갈라져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비록 마른 땅일지라도 그 주변에는 언제나 심판의 물결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나 군사력(이집트 병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에 대한 굳건한 신뢰뿐임을 그림은 침묵하며 외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 행렬에 서 있을까?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며 구원의 길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잠히 모세의 뒤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크라나흐의 그림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명확히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듯하다.

### 단 하나의 구원의 끈

크라나흐의 그림이 ‘결과’인 구원의 현장을 시각화했다면, 로시니의 아리아 ‘기도’는 구원이 일어나기 직전의 과정이자, 인간의 한계를 음악적으로 승화시킨 걸작이다.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의 마지막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다. 눈앞의 바다는 가로막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이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Dal tuo stellato soglio’(당신의 별이 빛나는 보좌에서)라는 제목의 ‘기도’ 아리아다.

“하나님, 당신의 빛나는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살피소서!”

이 곡은 웅장하면서도 숙연한 베이스(모세 역)의 독창으로 시작된다. 모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인간적인 전략이나 힘이 완전히 사라진, 오직 하늘의 자비만을 구하는 처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음악적 절정은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합창단)이 모세의 기도예에 동참하며 만들어진 다. 모세의 독창 선율을 다른 솔리스트들과 합창이 카논처럼 따라 부르며, 한 사람의 기도였던 것이 온 백성의 통성기도로 확장된다. 이 합창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 고난 앞에서 하나 된 영적 공동체의 간절함과 단호한 믿음을 청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 기도의 참된 감동은 ‘결핍’에 있다. 모세는 이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은 이 기도가 끝난 후에야 일어난다. 기도의 순간에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직 ‘믿음’만이 남아있었다.

로시니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응답’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온전한 의지’임을 가르쳐준다.

로시니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중 ‘기도’(Dal tuo stellato soglio)가 큰 인기를 얻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니콜로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782~1840)는 이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곡을 만들었다. 그 곡은 ‘모세 판타지(Mose-fantasia)’이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릴 정도로 바이올린에서 초인적인 기교를 자랑하는 파가니니가 모세의 경건하고 장엄한 기도 선율을 선택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파가니니는 이

장엄한 주제를 이어받아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현인 G현만을 사용해서 변주곡을 연주하도록 작곡했다. 파가니니의 의도는 바이올린의 기교를 극대화하는 데 있었지만, 이 ‘G선’ 연주하는 신앙적으로 깊은 울림을 준다. 이는 마치 모세가 모든 인간적 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단 하나의 구원의 끈)만을 의지하며 절망적인 홍해를 건너고 같은 것 아닐까? G선은 바이올린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다. 로시니 원곡의 베이스 음역을 모방하며 모세의 엄숙하고 진중한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교향곡

크라나흐의 그림과 로시니의 곡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신앙적 진리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의 삶 속에도 ‘홍해’는 늘 존재한다.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 짙어져야 할 질병의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혹은 홀로 견뎌야 하는 깊은 영적 침체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다. 뒤에는 염려와 불안, 세상의 유혹이라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히 쫓아온다.

이 순간, 우리는 크라나흐의 그림처럼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눈앞의 바다가 두려워 다시 이집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고 담대히 발을 내디딜 것인가? 구원의 길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로시니의 음악처럼, 우리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는 “바다를 갈라주세요!”라는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별이 빛나는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살피소서!”라는 ‘주권에 대한 고백’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순종의 기도만이 절망을 기적으로 바꾼다.

만약 지금, 홍해 앞에서 있다면 기억해야 한다. 구원의 길은 이미 우리를 위해 열려 있으며, 다만 그 길은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것을.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크라나흐의 그림처럼 구원의 경계선에 서서, 로시니의 곡 ‘기도’처럼 간절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별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 보좌에 상달 되어, 눈앞의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교향곡이 되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절망의 바다 앞에서 울려 퍼진 믿음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통로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음악 QR

# 솔로몬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김용호 장로  
(강남B공동체)

지금부터 3,000년 전 갓 20세 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다. 창기로 기록된 두 여인 사이의 영아 납치 형사건 겸 유아인도 민사건이 왕의 법정에 올라왔다. 일찍이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받아 마련한 백부장·천부장 체계의 심급관할은 왕정 시대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CCTV, 거짓말탐지기, 유전자감식도 없던 당시의 사정상 하급 재판관으로서 두 여인의 진실 공방을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조식 원님 재판이었다면 “네 죄를 네가 알렀다”며 곤장을 매우 쳐서라도 완벽한 자백을 받아냈을지도 모른다. 절대왕권이 아니었다면 죄 없는 유아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은 발할 수 없었으리라.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지성을 다한 뒤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바로 송사를 듣고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이었다(왕상 3:9, 11). 하지만 유아를 안고 있던 을녀가 생모인 갑녀 못지않게, 오히려 요즘 말로 ‘코스프레’라도 하듯 절규와 표정을 더 그럴듯하게 연기했다면 어땠을까. 그 경우에는 유아살해를 명하는 왕명을 거둬 만든 명분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당시 여인들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솔직함이 있었던 듯하다.

## 인간 심판의 한계

재판의 근간은 사실관계의 확정이다. 법령의 적용과 판단은 그다음 문제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지, 사실과 거짓 사이에 중간 지대란 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중도(中道)로 가라는 게 아니고, 정도(正道)로 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수 1:7).

재판의 역사는 어찌 보면 거짓과 싸움이다.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역사에는 직권 규문(劄問)주의가 지배해 왔다. 진실을 얻기 위해서라며 고문도 불사하다 보니,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영혼들의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쳤으리라.

무죄 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무죄(형소법 제310조), ‘카더라’ 식의 전문(傳聞)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형소법 제316조)는 규정 등 인간인 판관의 판단을 오염시킬 통로들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법 원칙은 알고 보면 들켜지 않은 죄인이 들킨 죄인을 재판해 온 역사적 폐해에 대한 대증처방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무능한 검사와 유능한 변호사가 한 뫼씩 해서 범인임에도 무죄를 받아내는 일도 제법 생기게 되는데, 이 또한 공의가 실현되



니콜라 푸생 <솔로몬의 재판> 1694년 루브르 박물관.

## “최종심은 이 땅에서 재판받은 사람뿐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지 못한 모습임이 분명하다.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주의(민소법 제203조)나 사실을 주장한 측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소송법 원칙은 소송상의 인정 사실이 얼마든지 실제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한계에 부딪치는 판관들에게 늘 도파성이 되어준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명언도 그 10명의 피해자로서 통곡할 일이지만, 역시 인간 심판의 한계를 보여주는 법언이다.

인간 판단 및 집행의 오류와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마 13:29)이 떠오른다. 3심에 불만이라고 4심에 5심제를 둔들, 판검사의 오관을 ‘법외국죄’로 처단하겠다고 한들, 그 재판 판관의 판단은 또 어찌 민겠는가. 어리석고도 수상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

화려하고 달콤한 공약(空約)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정치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을 끝까지 참이라고 우기는 세도가, 그 거짓을 편들며 능수능란한 위장술과 변장술로 출세와 영달을 노리는 정치 건달들, 거짓이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공공의 선으로 정당화된다는 이념, 아니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진실로 믿어지게 된다는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파당과 심지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해서 가르치려는 교육자, 이를 묵인 방조하는 선을 넘어 그럴싸한 근거 법리까지 만들어 바치는 법률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세태가 넓게는 십계명 제9조 위반(출 20:16) 거짓 증거죄요, 장차 둘째 사망에 처할 중대법 죄 중 하나(계 21:8)이다.

성경은 단호히 말한다.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라고(요 8:44). 거짓에 속거나 거짓을 편들면 제아무리 생사여탈 심판권을 가진 제왕이라 해도 일개 마귀의 하수인일 뿐이다. 40년 재위 기간에 숱한 재판을 감당해야 했던 솔로몬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잠 19:9)”이라 경고하면서, 인생 결론으로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다(전 3:16)”고 한탄하였다.

이사야, 아모스, 미가 등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재판의 부패, 공의의 실종을 목숨 걸고 꾸짖었고,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대리 법정은 무고한 백성의 재산을 강취하기 위해 모해(謀害) 증인 둘을 내세운 조작 기소, 사법살인의 현장까지 여실히 보여주었다(왕상 21:10).

## 최종심 재판장은 창조주 하나님, 재림주 예수님

솔로몬으로부터 천년이 흐른 뒤 빌라도의 법정엔 어떠했나. 유대 땅 총독으로 부임할 정도라면 그 시대 누구보다 지적 판단능력이 탁월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피고인 예수에게 내란수괴 혐의도 소요선동 사실도 없다는 것, 그저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무리가 극한 시기심으로 총독의 극형을 받아내기 위해 내란 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막 15:10). 스스로 세 번이나 무죄 판단을 하고서도(눅 23:4, 14, 22) ‘유대인의 왕’ 즉, 반역 수괴 죄책을 붙이는 심자가 처형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 지휘하였으니, 비겁한 판사의 원조로 사탄의 사역자로 사도신경에서 대대손손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니겠는가.

빌라도 이후 다시 2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법정엔 어떠한가. 재판의 정도(正道)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

고, 세력 있는 자라고 옹호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한다(출 23:3, 레 19:15).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신 1:17), ‘송사에 먼저 온 자가 옳게 보이나, 상대방이 와서 밝힌다(잠 18:17)’며 정략적 프레임을 씌워 보지 말고 쌍방에 공평한 기회를 주라’고 말씀한다.

거짓은 자기 정체를 감추느라 더 큰 거짓을 만들어 내고, 결핍하면 평등이니 정의니 인권이니 또는 국민의 뜻이라는 둥 온갖 송고한 탈을 쓰고 행세하고 있다. 송사에서도 갑질보다 을질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사실 부인과 위증에서부터 시작해 사탄의 작업은 무고(誣告)와 모해위증을 넘어 공상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까지 등장시켰다.

기술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에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공장까지 등장시켜 민심을 노략질하고 있다. 득표에 자신이 좀 생기면 슬그머니 민주주의를 내세워 다수결로 결론 내자고 하지만, 다수결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있다. ‘송사할 때 다수의 편을 따라 부당하게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출 23:2)을 보라. 집단 이성보다 집단광기로 맹목한 여론에 휩쓸리는 판결을 대할 때마다 공의가 서지 아니함에 통분하게 된다. 사실이나, 아니냐는 여론조사 통계로도 학문적 확률 수치로써도 재단될 수 없는 영역이다. 데이터 확증 편향이 심한 AI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롬 3:23). 범조인이란 다름 것이 없다. 다만 우리는 최종심의 재판장이 창조주 하나님(시 7:11, 75:7, 롬 14:10), 재림주 예수님(행 10:42, 계 20:11)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최종심은 이 땅에서 재판받은 사람뿐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신 1:17). 물론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출 19:5)이지만, 유독 전쟁(삼상 17:47)과 재판을 꼭 집어내서 말씀하신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터, 승패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대하 19:6-7)”는 여호사바트의 권면은 비단 판단하는 사법과 이를 둘러싼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을 만드는 입법, 수사하고 집행하는 행정 그 모든 법률 영역에서 일하는 기독교 범조인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다.

온누리교회 40년 사역을 이끌어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광란의 시대에 새로 출범하는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은 또 어떻게 들어 쓰실지 자못 궁금해진다.

OLF(Onnuri Lawyers Forum) 창립예배  
일시: 2026년 1월 20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최태형 변호사(010-3281-0735)

크리스천을 위한 ‘문화 산책’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영화 ‘신의 악단’

신작 상업영화를 개봉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복음적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문화선교’에 큰 관심을 두고, 그와 관련된 취재도 여러 차례 하면서 다 큐멘터리 말고도, 대중적 혹은 상업적 영화와 드라마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가를 고민하던 터라 무척 반가웠다. 무엇보다 “상업영화지만, 기독교적 내용을 담았다”는 그 한 문장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곧장 이메일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했

었다. 얼마 전, 조용히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어느 영화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대표로 있는 영화 제작사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다. 그리고 영화 제작사 대표와 만났다. 아무래도 상업영화이기에 보도하는 데도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작사 대표에게 이 영화를 제작한 배경과 취지를 물었다.

“영화 ‘신의 악단’은 상업영화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화를 보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영화 시사회에도 참석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문장이 떠올랐다.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이 영화의 감상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었다.

영화 ‘신의 악단’은 국제 제재와 외화난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기 위한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NGO 단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흥회를 개최하라”는 이 황당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보위부장교 ‘박교순’이 가짜 찬양단이 될 단원들을 모색한다. 비밀리에 탈북을 준비하던 ‘승리

악단’이 가짜 찬양단으로 발탁되고, 박교순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김 대위’까지 열렬히 합류하면서 12명의 ‘신의 악단’이 구성된다.

가짜 부흥회 준비 과정에서 순탄치 않다. 서로 다른 목적과 속내를 숨긴 채 연습을 이어가는 인물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인물들의 신념마저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박교순’과 ‘김 대위’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이 영화의 중심 정서를 이끈다. ‘연기된 믿음’ 속에 스며든 ‘진짜 복음의 힘’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영화 ‘신의 악단’은 ‘대북제재’, ‘보위부’, ‘가짜 찬양단’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속에 복음을 은밀하게 숨겨둔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문득 스스로 묻는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상업영화인가, 아니면 기독교 영화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 영화의 전략이자 메시지다. 영화 ‘신의 악단’은 노골적인 설교나 전도 없이도,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영

화 속 주인공은 물론이고,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게 한다. 영화 말미에 비로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 영화는 크리스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올 때 느끼는 반가움, 단원의 수가 언급되는 순간 등 기독교적 지식이 있는 관객이라면 발견의 기쁨을 느끼는 지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복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울림을 남기는 이 영화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한 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간다. 특히 전도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정서를 은근히 전할 수 있다.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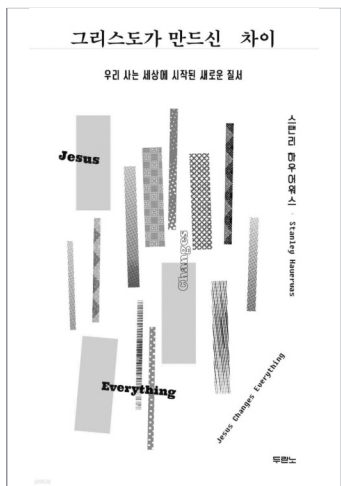
영화 ‘신의 악단’은 12월 31일(수)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성탄절 전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단체관람도 준비하고 있다. 단체 관람을 원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단 문의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10-3796-0818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두란노 신간

예수님 따르겠다는 선택!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  
스탠리 하우어워스 저 | 두란노 | 14,000원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방대한 저작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엄선해 엮었다. 단순 발췌가 아니다. 저자가 직접 글 전체를 새로 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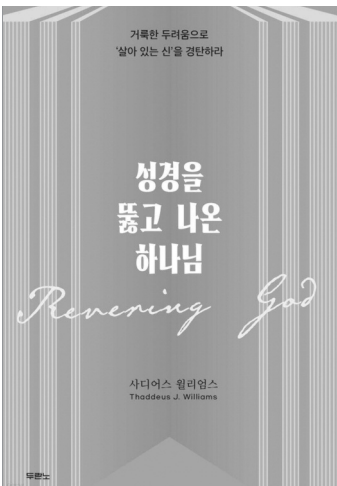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자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덕’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이해할 때 내러티브와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 이르

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는 특히 오늘날의 ‘탈기독교 세계’도 예리하게 진단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는 문화적, 정치적 중심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비극으로 여기며 한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난 지금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대안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최적의 기회임을 역설한다. 중심을 잃은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혼란한 시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천적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장



《성경을 꿰고 나온 하나님》  
사디어스 윌리엄스 저 | 두란노 | 24,000원

론적 논의에서 머물지 않는다. 카뮈의 소설과 영화 ‘조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성당 천장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과 다양한 사회학적, 심리적, 과학적 연구자료들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신학적 깊이와 현실적 통찰을 겸비한 이 책은 우리의 일상과 사고, 예배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진정한 예배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독자들은 《성경을 꿰고 나온 하나님》을 통해 살아 계신, 크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신앙을 오래 유지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은 이들, 하나님에 대해 막연함을 느껴온 성도들에게 이 책은 깊이 있으면서도 읽기 쉬운 탁월한 안내서다.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날 많은 이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저 ‘복을 베푸는 모호한 선의의 존재’, ‘비위 맞추기 힘든 심사위원’으로 비쳐지곤 한다. 더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애써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 시대, 경외함을 잃어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초대장이 날아왔다. 바로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저술한 《성경을 꿰고 나온 하나님》이다.

《성경을 꿰고 나온 하나님》에서는 다루기 까다로운 신론(神論)의 핵심 주제들을 창의적이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탐구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단순한 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시간을 꿰고’  
위러브(WELOVE)

의 ‘시간을 꿰고’를 소개한다.

“당신은 시간을 꿰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이 찬양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유한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성탄’의 신비를 서정적인 가사로 풀어낸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신 것이다.

특히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라는 고백은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관통한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의 편안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선물하셨다.

대림절을 보내며, 나의 시간을 꿰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주하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라는 찬양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연플리\_연말에 듣기 좋은 찬양 플레이리스트

## 엔젤 러브레터, 딱 당신을 위한 자리!

12월 20일 오후 12시 강동 두란노홀 '강동 맞춤형도움악회'

강동온누리교회가 지역 주민과 새 신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12월 20일(토) 오후 12시 강동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맞춤형도움악회 '엔젤 러브레터, 딱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막 오른다.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웃음, 복음을 나누는 은혜의 장(場)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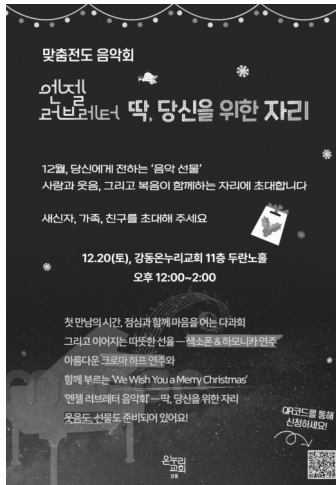
맞춤도움악회 '엔젤 러브레터, 딱 당신을 위한 자리'에서는 브런치 및 식사 교제, 하모니카 추억의 동요, 찬양, 레크리에이션, 색소폰&하모니

카 연주, 크로마하프 연주, 말씀, 소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이번 맞춤형도움악회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고 싶은 성도들은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이름, 공동체, 연락처, 전도 대상자 이름, 성별, 연령대, 기도제목 등을 작성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온누리교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1월 6일까지 온라인, 목회행정실, 재정국 신청

온누리교회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정책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는 혜택이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26년 1월 6일까지 신청해야 1월 9일 국세청 신고 및 1월 13일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개인정보 등록 및 관리는 정보 위탁 업체 '휴먼소프트웨어'의 'MRM 후원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개인정보 등록하는 과정 중에 표시되는 '1원 약정'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실제로 약정되지 않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이 어려운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과 서빙고온누리교회 재정국에 방문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3215-3265



## 12월 화요성령집회 '성탄의 기쁨'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2월 화요성령집회가 '성탄의 기쁨'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12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9일 최대홍 목사 '동행의 기쁨' (요 1:1~14), 16일 최성민 목사 '구속의 기쁨'

(롬 3:21~26), 23일 이서진 목사 '하평의 기쁨' (렘 2:11~22), 30일 최성민 목사 '소망의 기쁨' (계 22:12~21)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우미셀, 아이자야 씩스티원 정연준 등의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 다시 성경으로!

CGN 성경 공부 프로그램 'RE바이블'

CGN 성경 공부 프로그램 'RE바이블'이 인기다. 성경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말씀의 본질을 탐구하고,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RE바이블 첫 주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다. 개그우먼 김경아가 진행하고,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가 강의한다. 열두 제자 시리즈는 6주 동안 이어진다. 기독교 OTT '풍당'에 5편까지 업로드 됐다(1편 빌립과

안드레, 2편 야고보와 요한, 3편 마태와 작은 야고보, 4편 베드로와 시몬 그리고 유다, 5편 나다니엘과 도마).

열두 제자 시리즈 이후에도 성경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목사와 학자 등 성경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RE바이블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CGN TV에서 방송된다.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아 PBN 사업 국제적 인정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다르 엘 바이파 지역에서 실시한 PBN(Programme Better Nutrition) 영양 개선 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업 결과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발행하는 <국제개발협력 학술지>에 공식 게재됐다. NGO 더멋진세상 설립 이후 현장 사업이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NGO 더멋진세상이 온누리교회와 함께 추구해 온 '총체적 선교'의 열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기도 하다.

'모리타니아 PBN 사업'은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과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타니아 아동들의 MUAC와 체중이 의미 있게 증가했고, 음악치료 활동이 아동의 정서 안정 및 반응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리타니아 PBN 사업'은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과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타니아 아동들의 MUAC와 체중이 의미 있게 증가했고, 음악치료 활동이 아동의 정서 안정 및 반응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17기 모집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17기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남양주온누리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1월 10일(토)부터 15일(목)에는 청소년반 베트남 아웃리치를 간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다.

선착순 20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부모반 5만 원(부부 8만 원), 청소년반 5만 원(형제, 자매 8만 원, 아웃리치 회비 별도)이다. 청소년반 스태프도 모집한다. 문의: 010-6476 0524(이건준 전도사)

## 양재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 저녁반(신약) 참가자 모집

양재여성사역 성경일독학교 저녁반(신약)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장소 추후 공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2월 27일(토)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2-570-7457

## 알립니다.

지난 11월 23일자 <온누리신문>에서 소개한 '최베드로 선교사의 후원 계좌번호'가 변경되었기에 알립니다. 이미 최베드로 선교사의 기존 계좌번호로 후원한 성도님들은 이름과 후원 일자, 금액을 적어서 이메일(choirik@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계좌: 하나은행 573-90009-578237 (최베드로)

##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창립예배

1월 20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교회의 법조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긴다.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창립예배를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OLF는 2025년 열린 '법조인을 위한 맞춤형도움'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모인 법조인 성도들이 구성한 신앙 공동체다.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을 함께 나누는 열린 모임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찬기도회, 말씀 나눔, 북클럽 등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최태형 변호사(OLF 총무)는 "OLF가 복잡한 시대 법조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내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면서 "분기별 정기모임을 할 계획인데 많은 법조인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제55회 메시아 연주회 막 내려

'희망친구 기아대책 NGO'에 2천만 원 기부

제55회 메시아 연주회가 12월 4일(목) 세종대극장에서 막을 내렸다. 60여 개 한국 교회에서 모인 찬양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온누리교회 홍정표 장로가 지휘했다.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홍혜란, 코트랄토 오스틴 김, 테너 최원희, 바리톤 이승왕이 출연했고, 챔발로 남예셀, 오르간 민혜원이 협연했다. 공연은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예수의 수난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을 주제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온누리교회가 메시아 연주회에 기부한 2천만 원을 '희망친구 기아대책 NGO'에 전달하는 '기부서 증정 행사'가 있었다. 박영주 이사장(메시아연주회), 김지연 총무이사(메시아연주회), 박재범 목사(기아대책 교계총괄),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이광순 장로(메시아 준비위원장), 남윤창 장로(메시아 실행위원장),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등이 참석했다. / 박지혜 기자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5 명예권사, 권사, 안수집사 임직 소감

#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일꾼 634명이 세워졌다. 지난 11월 29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권사 170명(명예권사 4명, 권사 166명), 안수집사 464명(남자 159명, 여자 305명)이 임직됐다. 이하정 명예권사(강남A공동체), 임수진 권사(양재B공동체), 정상근 안수집사(서대문공동체), 강민정 안수집사(제주온누리교회)가 임직 소감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권사



이하정 명예권사  
(강남A공동체)

세상적으로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제게 이 귀한 명예권사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께 나 이 제한 전에 교회 규칙에 따라 교육을 듣고, 임직 조건을 잘 갖추기를 권면

하고 싶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신앙 성숙에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회의 승진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즐거운 일, 해야 할 일 등으로 충분히 바쁘고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지난 10년 여러 사역팀에서 섬기며 온누리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역과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말씀과 권면으로 묵묵히 섬기는 목회자들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것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당, 뜨거운 찬양, 울퉁한 말씀 선포, 신실한 성도님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임직자스쿨의 훈련 과정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 다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읽으며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과 故 하용조 목사님의 교회 설립 취지를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40년의 발자취와 사역, 선교의 흐름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섬기고, 통일선교 사역과 전도, 말씀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명예권사 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 세워진 모든 직분자가 한 마음으로 복된 교회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권사



임수진 권사  
(양재B공동체)

2021년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4년 만에 권사 임직에 도전했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 수련회에서 문득 '내가 과연 권사 임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제라도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시간에 회개와 함께 새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도곡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에서 2년째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임직자스쿨을 수료하면서 '이미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봉사를 해야 하지'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 훈련을 대하는 제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러빙핸즈와 주차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게 되

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양재 권사 4조'에서 큐티 나눔을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새벽기도회 참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를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하던 큐티였지만, 기록을 위해 더 집중하며 묵상하다 보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죄를 저의 죄로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한을 위해, 이 한반도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교만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저는 분별은 하지만,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권사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 먼저 듣고, 섬기고, 낮아지는 안수집사



정상근 안수집사  
(서대문공동체)

온누리교회에서의 모든 훈련과 공동체 생활은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받았던 여러 훈련 가운데서도 이번 임직자스쿨은 특별

했습니다.

매시간 강의마다 제 마음에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특히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선교적 교회' 강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때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택할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가졌는가', '일터에서 말려진 사명을 잊고 세상 명예를 좇지는 않는가', '전도와 봉사

라는 두 기둥 위에 서야 할 임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임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으로 받는 임직인가?'라는 질문들이 제 신앙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임직자스쿨의 강의와 봉사, 새벽기도회, 각종 과제 작성 등을 힘겹게 거치면서 임직은 자격이 있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자격 없는 자가 그저 순종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임직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큐티와 기도로 열고, 영성을 갖춘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듣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신 겸손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임직자, 일터를 사역지로 여기고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으로 소중히 대하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드러나지 않는 빈자리를 먼저 채우는 임직자,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세워 온 온누리교회 40년을 이어받아 다음세대가 건너갈 다리를 놓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 더욱 충성되게 섬기는 안수집사



강민정 안수집사  
(제주온누리교회)

서초B공동체와 D공동체에서 남편과 함께 수년 동안 순장과 순모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제주도에 오게 되었고, 목사님 추천으로 제주 드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드림교회가 제주온

누리교회로 전환되면서 양육 과정을 거쳤고, 은혜 가운데 제주온누리교회 첫 안수집사로 임직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주온누리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Acts29 선교센터를 세워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육, 휴식을 돕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외부 인사들의 강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세계 곳곳의 대학으로 나아갈 때 '보내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주 '강한기도모임'과 노인센터, 고아원 등 주기적인 봉사를 통해 교회 안팎에서 작지만 분명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작은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끈끈한 기도와 봉사의 문화를 제주온누리교회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안수집사 임직 과정은 제게 많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일독하고, 권장도서를 읽으면서 온누리교회 설립 이념과 역사, 사역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으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큐티 과정은 그동안 기계적이고, 찰나의 영상에만 의존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한 줄 한 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모두 '온누리'라는 틀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화합하며 작지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사명에 동참하며 더욱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 장로칼럼



임채남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CGN선교사역팀 담당)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CGN 중문대 김성수 지사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의 CGN 대만지사 직원들의 한국 방문 비전트립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박 4일 비전트립은 하나님의 사랑

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한 시간이었다.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던 CGN 대만지사 직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나님이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2024년 10월, CGN 중문대로 아웃리치를 떠난 날이 떠올랐다. 김재승 목사님, 이영태 팀장님을 포함한 열두 명의 믿음의 용사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대만 땅을 밟았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도시가 마비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12명의 CGN 중문대 직원의 책상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CGN 중문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고, 대만과 중국 대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기도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영원할 것 같던 비바람이 걷히고 며칠 동안 얼굴도 모르며 기도했던 대만 직원들을 만나 부둥켜안고 웃으며 이내 짝꿍이 되었다. 수원온누리교회 CGN 운영위원회와 CGN 선교사역팀은 CGN 중문대와 MOU를 체결하고, 현지 선교를 지원하는 협약식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CGN 중문대 직원들의 한국 방문을 추진했다. 여름에 나가는 공동체 해외 아웃리치 비용이면 대만지사 직원들의 한국 비전트립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GN 중문대 직원들이 CGN 본사를 방문하고, 수원온누리교회 예배에서 특순으로 사랑을 나누고, 문화체험을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곧 모든 수원 CGN 운영위원들과 선교사역팀원들이 중보기도하며 대만 직원 비전트립의 전적인 후원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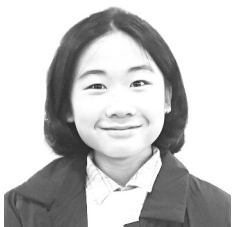
수원온누리교회 CGN 선교사역팀은 4개 세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해외선교팀, 국내선교팀, 메신저사역팀, 풍당계정사역팀). CGN 본부를 지원하는 수동적인 사역이 될지 모른다는 초창기 우려가 있었지만, 운영위원들과 선교사역 팀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적극적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

했다.

국내선교사역팀은 주일학교가 없는 미자립 교회에 풍당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해외선교사역팀은 CGN 중문대처럼 해외에서 헌신하는 CGN 직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성도들이 해외로 나가야만 아웃리치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해외 사역자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일 또한 새로운 형태의 아웃리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메신저사역팀은 기독교 OTT 풍당의 우수 콘텐츠 ‘3분 메시지(SOON)’를 매주 공동체에 전달하고, 풍당개정사역팀은 수원온누리교회의 주요 예배 영상과 스쿨, 공동체 자체 영상을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하고 있다.

중국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최근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예배와 선교는 어려운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 더욱 강해졌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CGN 중문대가 중국 선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수원온누리교회 CGN선교사역팀이 그 고귀한 사역에 끝까지 동역하기를 소망한다. 중국 선교의 통로를 세우는 값진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제55회 메시아 연주회 참여 간증



/ 이앤드류희 학생(양재 초동부)

## 작은 자의 코람데오, 메시아

올여름, 삶이 가장 복잡하고 힘들었던 순간 나는 뜻밖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만났다. 잘못된 이사 계약으로 홈리스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 집은 여기저기 흩어진 채 제자리를 잃고 있었다. 그 어수선했던 속에서 ‘제55회 메시아 오디션’ 공고를 발견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을까 망설였다. 그러나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지원했다. 그리고 8월 27일, 합격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특별찬양을 드리고 싶었던 바람과 달리 가족 중 나만 합격했다. 하지만 곧 이 연주회가 ‘60년 한국 교회 연합 메시아’의 전통을 이어온 귀한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내가 이 오랜 역사 속 역대 최연소 합창대원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였다. 성령님이 불안하고 지쳤던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내게 찾아오셨음을 깨달았다.

24일 만에 작곡된 ‘오라토리오’는 헨델의 재능보다, 아픈 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감의 결과라고 믿는다. 지휘자님 또한 이 작품은 단순히 받아 적어도 24일 안에 끝낼 수 없는 분량이라고 하셨다. 게다가 대부분 가사가 <KJV 성경>(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직접 가져온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복음의 전달’이라는

사명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4개월 동안 전국 55개 교회 대원들과 함께 한 연습은 단순한 합창을 넘어, 각 곡의 성경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어떤 가사들은 오해하기 쉬운 표현도 있었기에 성경을 직접 찾아가며 메시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덕분에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사 43:21)는 말씀처럼, 찬양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가장 알맞을 때, 내가 가장 필요했던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 과정에서 기도와 음악, 생각의 영역까지 성장하게 하셨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가 주관한 ‘제55회 메시아 연주회’에서 찬양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끌어주신 지휘자님과 함께 노래한 200여 명의 대원, 그리고 매번 운전과 기도로 동행하며 도와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작은 입술로 메시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증언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 ‘더 깊은 묵상 스쿨’ 참가자 간증



/ 지정여 자매(이촌공동체)

## 그 소중한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6주 동안 진행된 ‘더 깊은 묵상 스쿨’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 그 이상이었다. <로마서>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매주 말씀을 읽고, 목사님께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더 깊은 묵상 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낭독하신 <로마서> 말씀을 들으며 준비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성처럼 느껴졌고,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예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강해 시간에 목사님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보다 하나님 중심의 은혜를 강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말씀을 소리 내 읽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입술로 읽을 때 마음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소리 내어 읽는 이 단순한 행위가 생각보다 큰 은혜였음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합심 중보기도와 찬양 시간에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열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책임이며, 그

책임이 흘러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배웠다.

자연 묵상 시간에는 조원 한 분이 말씀 한 구절을 나눠주셨는데,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롬 11:36)

말씀에 적혀 있는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분이 이끌고 계시며,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목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더 깊은 묵상 스쿨에서 하나님이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을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 그 소중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입술로 낭독하며, 매일의 삶을 겸손히 살고자 한다. 목사님과 스태프들, 조장님과 조원들 덕분에 수료할 수 있었다.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p><b>국내 온누리교회</b></p> <p><b>이재훈 위임목사</b></p> <p>• 서빙고<br/>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br/>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p> <p>• 양재<br/>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br/>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br/>햇불선교센터</p> <p>• 부천<br/>정재욱 목사 (032) 322-9686<br/>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p> <p>• 수원<br/>김승훈 목사 (031) 895-6500<br/>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p> <p>• 대전<br/>김상수 목사 (042) 825-3642-4<br/>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p> <p>• 남양주<br/>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br/>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p> <p>• 평택<br/>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br/>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길 61 2층</p> <p>• 인천<br/>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br/>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p> <p>• 강동<br/>노희태 목사 (02) 475-9686<br/>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br/>나비빌딩 11, 12층</p> <p>• 양지<br/>양재경 목사 (031) 331-8171<br/>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p> |  | <p>• 영종<br/>도육환 목사 (032) 752-7937<br/>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p> <p>• 제주<br/>노규석 목사 (064) 794-8090<br/>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p> <p>• 안산 온누리M센터<br/>김태완 목사 (031) 491-9650<br/>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p> <p>■기도처</p> <p>• 태안온누리<br/>최영민 목사 070-8627-7676<br/>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br/>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p> <p>• 서산온누리<br/>최영민 목사 (041) 665-9686<br/>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p> <p>• 봉화온누리<br/>엄정순 권사 (054) 673-7428<br/>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p> <p>■AMA 형제교회</p> <p>• 춘천 새순교회<br/>임용성 목사 (033) 264-0291<br/>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p> <p>■AMA 협력교회</p> <p>• 진새골온누리<br/>주수일 장로 (031) 767-2776<br/>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p> |  | <p><b>해외 온누리교회</b></p> <p>■미서부</p> <p>• 엘바인<br/>박신웅 목사 1-949-261-9100<br/>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p> <p>• 로스앤젤레스<br/>이정엽 목사 1-213-382-5658<br/>743 South Grand View st.<br/>Los Angeles, CA 90057, USA</p> <p>• 샌디에이고<br/>1-619-847-4147<br/>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br/>CA 92126</p> <p>• 산타모니카<br/>장정철 목사 1-213-235-5791<br/>1420 Yale St, Santa Monica,<br/>CA 90404</p> <p>• 괌<br/>김형철 목사 1-671-734-8522<br/>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p> <p>■미동부</p> <p>• 보스턴<br/>김철진 목사<br/>1-781-933-7044<br/>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p> <p>• 시카고<br/>이종재 목사 1-630-753-9191<br/>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p> <p>• 뉴욕IN2<br/>심상현 목사 1-212-427-2055<br/>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p> <p>• 뉴저지<br/>Marc Choi 목사 1-201-461-4010<br/>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p> |  | <p>■미북부</p> <p>• 포틀랜드<br/>이상권 목사 1-503-628-2000<br/>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p> <p>• 앵커리지<br/>서재범 목사 1-907-569-9191<br/>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p> <p>• 밴쿠버<br/>이재정 목사 1-604-888-0092<br/>19711 86th Ave.<br/>Langley, BC V2Y 1Z5 Canada<br/>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br/>168th Street, Surrey</p> <p>■오세아니아</p> <p>• 시드니<br/>전현규 목사 61-2-9649-1180<br/>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p> <p>• 오글랜드<br/>조준목 목사 64-21-0810-3132<br/>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br/>New Zealand</p> <p>• 홍콩<br/>문영재 목사 852-2506-0089<br/>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p> <p>■일본</p> <p>• 동경<br/>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br/>(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p> <p>• 오사카<br/>문봉주 목사 81-6-6121-2015</p> |  | <p>(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br/>Chuoku Osaka Japan</p> <p>• 우에다<br/>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br/>(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br/>1377-64 JAPAN</p> <p>• 요코하마<br/>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br/>(231-0012) Yaomasa Bldg.4F, 3-63 Aioli-cho,<br/>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p> <p>• 야치요<br/>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br/>(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p> <p>• 나고야<br/>정호석 목사 81-52-938-5011<br/>(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 DAIA-MOND 2F</p> <p>• 교토<br/>권영환 목사 81-75-748-9303<br/>(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br/>1-4(1F&amp;2F), ukyo-ku, Kyoto-si</p> <p>■중동</p> <p>• 아부다비<br/>김도국 목사 971-56-385-4238<br/>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br/>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p> <p>■동남아시아</p> <p>• 베트남<br/>이길택 목사 84-8-5412-2773<br/>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p>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노규석

####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영갑 김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재승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렴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온A 박성온B 박성현 박정중  
박철웅 박태원 박형준 배순양  
배현산 배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정훈  
신대중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조동욱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성하 유진아 유현목 윤미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지훈 장병현 장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운 정성환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용준 최재용 최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서미 주하늘  
최대훈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대식 이선민 이소라 최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해률도김 하원희  
황문규 황유일

#### ◆전도사(전임)

김한솔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현우 임동원 최강호  
홍근영

#### ◆부목사(준전임)

권오항 구해미 조오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전 목사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진 비 켈 서경남 서영철  
심은섭 생애뉴스 양현수 율예씨  
에릭마더스블즈 이강혁 이만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하효경  
황인선

#### ◆전도사(파트)

김동현 강경주 구길모 권영찬  
권예람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명조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영범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희수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화목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노재환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률 박영익 박봉래  
박상술 박성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규  
박성현 박찬빈 박대식 박형민  
박흥근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사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환기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학철  
신현중 신상달 신재국 신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준경 양태진 양성원 양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만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영 윤의준 유성호 윤성훈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강재 이기중 이광호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택 이영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준상 이현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장 광

조은식 주승환 최성진 최 은  
최영은 홍세나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용성  
구재영 권덕환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철 김관근  
김갑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병중  
김명철 김명훈 김병욱 김상목  
김석익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순 김상인 김수역 김수웅  
김용성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근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근 김진철  
김재국 김재일 김종진 김종성  
김종승 김주홍 김준홍 김진국  
김정국 김철수 김태중 김하중  
김현철 김형경 김희성 김형중  
나상근 노재환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률 박영익 박봉래  
박상술 박성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규  
박성현 박찬빈 박대식 박형민  
박흥근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사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순환기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학철  
신현중 신상달 신재국 신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준경 양태진 양성원 양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만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영 윤의준 유성호 윤성훈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강재 이기중 이광호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길 이영세 이영택 이영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준상 이현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창하 정문규 정병균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종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택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희준 조정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환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환 차정민  
최소성 최덕민 최 명 최창근  
최진석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수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중대  
한창경 한영석 한공식 한성호  
한일성 한광수 한영식 한종일  
홍기영 홍덕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옥 홍영오

####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철호 강종호 강창제 강태욱  
강일환 강영주 광범철 광진성  
곽대일 권오현 권세중 권세환  
권오성 권오현 권혁은 금세중  
김경돈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동영  
김동원 김동원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규 김상철 김상철 김선호  
김성근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환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환D 김영환E 김영환F  
김영환G 김영환H 김영환I  
김영환J 김영환K 김영환L  
김영환M 김영환N 김영환O  
김영환P 김영환Q 김영환R  
김영환S 김영환T 김영환U  
김영환V 김영환W 김영환X  
김영환Y 김영환Z 김영환AA  
김영환AB 김영환AC 김영환AD  
김영환AE 김영환AF 김영환AG  
김영환AH 김영환AI 김영환AJ  
김영환AK 김영환AL 김영환AM  
김영환AN 김영환AO 김영환AP  
김영환AQ 김영환AR 김영환AS  
김영환AT 김영환AU 김영환AV  
김영환AW 김영환AX 김영환AY  
김영환AZ 김영환BA 김영환BB  
김영환BC 김영환BD 김영환BE  
김영환BF 김영환BG 김영환BH  
김영환BI 김영환BJ 김영환BK  
김영환BL 김영환BM 김영환BN  
김영환BO 김영환BP 김영환BQ  
김영환BR 김영환BS 김영환BT  
김영환BU 김영환BV 김영환BW  
김영환BX 김영환BY 김영환BZ  
김영환CA 김영환CB 김영환CC  
김영환CD 김영환CE 김영환CF  
김영환CG 김영환CH 김영환CI  
김영환CJ 김영환CK 김영환CL  
김영환CM 김영환CN 김영환CO  
김영환CP 김영환CQ 김영환CR  
김영환CS 김영환CT 김영환CU  
김영환CV 김영환CW 김영환CX  
김영환CY 김영환CZ 김영환DA  
김영환DB 김영환DC 김영환DD  
김영환DE 김영환DE 김영환DF  
김영환DG 김영환DH 김영환DI  
김영환DJ 김영환DK 김영환DL  
김영환DM 김영환DM 김영환DN  
김영환DO 김영환DO 김영환DP  
김영환DQ 김영환DR 김영환DS  
김영환DT 김영환DT 김영환DU  
김영환DV 김영환DV 김영환DW  
김영환DX 김영환DX 김영환DY  
김영환DY 김영환DY 김영환DZ  
김영환EA 김영환EA 김영환EB  
김영환EC 김영환EC 김영환ED  
김영환EE 김영환EE 김영환EF  
김영환EF 김영환EF 김영환EG  
김영환EG 김영환EG 김영환EH  
김영환EH 김영환EH 김영환EI  
김영환EI 김영환EI 김영환EJ  
김영환EJ 김영환EJ 김영환EK  
김영환EK 김영환EK 김영환EL  
김영환EL 김영환EL 김영환EM  
김영환EM 김영환EM 김영환EN  
김영환EN 김영환EN 김영환EO  
김영환EO 김영환EO 김영환EP  
김영환EP 김영환EP 김영환EQ  
김영환EQ 김영환EQ 김영환ER  
김영환ER 김영환ER 김영환ES  
김영환ES 김영환ES 김영환ET  
김영환ET 김영환ET 김영환EU  
김영환EU 김영환EU 김영환EV  
김영환EV 김영환EV 김영환EW  
김영환EW 김영환EW 김영환EX  
김영환EX 김영환EX 김영환EY  
김영환EY 김영환EY 김영환EZ  
김영환EZ 김영환EZ 김영환FA  
김영환FA 김영환FA 김영환FB  
김영환FB 김영환FB 김영환FC  
김영환FC 김영환FC 김영환FD  
김영환FD 김영환FD 김영환FE  
김영환FE 김영환FE 김영환FF  
김영환FF 김영환FF 김영환FG  
김영환FG 김영환FG 김영환FH  
김영환FH 김영환FH 김영환FI  
김영환FI 김영환FI 김영환FJ  
김영환FJ 김영환FJ 김영환FK  
김영환FK 김영환FK 김영환FL  
김영환FL 김영환FL 김영환FM  
김영환FM 김영환FM 김영환FN  
김영환FN 김영환FN 김영환FO  
김영환FO 김영환FO 김영환FP  
김영환FP 김영환FP 김영환FQ  
김영환FQ 김영환FQ 김영환FR  
김영환FR 김영환FR 김영환FS  
김영환FS 김영환FS 김영환FT  
김영환FT 김영환FT 김영환FU  
김영환FU 김영환FU 김영환FV  
김영환FV 김영환FV 김영환FW  
김영환FW 김영환FW 김영환FX  
김영환FX 김영환FX 김영환FY  
김영환FY 김영환FY 김영환FZ  
김영환FZ 김영환FZ 김영환GA  
김영환GA 김영환GA 김영환GB  
김영환GB 김영환GB 김영환GC  
김영환GC 김영환GC 김영환GD  
김영환GD 김영환GD 김영환GE  
김영환GE 김영환GE 김영환GF  
김영환GF 김영환GF 김영환GG  
김영환GG 김영환GG 김영환GH  
김영환GH 김영환GH 김영환GI  
김영환GI 김영환GI 김영환GJ  
김영환GJ 김영환GJ 김영환GK  
김영환GK 김영환GK 김영환GL  
김영환GL 김영환GL 김영환GM  
김영환GM 김영환GM 김영환GN  
김영환GN 김영환GN 김영환GO  
김영환GO 김영환GO 김영환GP  
김영환GP 김영환GP 김영환GQ  
김영환GQ 김영환GQ 김영환GR  
김영환GR 김영환GR 김영환GS  
김영환GS 김영환GS 김영환GT  
김영환GT 김영환GT 김영환GU  
김영환GU 김영환GU 김영환GV  
김영환GV 김영환GV 김영환GW  
김영환GW 김영환GW 김영환GX  
김영환GX 김영환GX 김영환GY  
김영환GY 김영환GY 김영환GZ  
김영환GZ 김영환GZ 김영환HA  
김영환HA 김영환HA 김영환HB  
김영환HB 김영환HB 김영환HC  
김영환HC 김영환HC 김영환HD  
김영환HD 김영환HD 김영환HE  
김영환HE 김영환HE 김영환HF  
김영환HF 김영환HF 김영환HG  
김영환HG 김영환HG 김영환HH  
김영환HH 김영환HH 김영환HI  
김영환HI 김영환HI 김영환HJ  
김영환HJ 김영환HJ 김영환HK  
김영환HK 김영환HK 김영환HL  
김영환HL 김영환HL 김영환HM  
김영환HM 김영환HM 김영환HN  
김영환HN 김영환HN 김영환HO  
김영환HO 김영환HO 김영환HP  
김영환HP 김영환HP 김영환HQ  
김영환HQ 김영환HQ 김영환HR  
김영환HR 김영환HR 김영환HS  
김영환HS 김영환HS 김영환HT  
김영환HT 김영환HT 김영환HU  
김영환HU 김영환HU 김영환HV  
김영환HV 김영환HV 김영환HW  
김영환HW 김영환HW 김영환HX  
김영환HX 김영환HX 김영환HY  
김영환HY 김영환HY 김영환HZ  
김영환HZ 김영환HZ 김영환IA  
김영환IA 김영환IA 김영환IB  
김영환IB 김영환IB 김영환IC  
김영환IC 김영환IC 김영환ID  
김영환ID 김영환ID 김영환IE  
김영환IE 김영환IE 김영환IF  
김영환IF 김영환IF 김영환IG  
김영환IG 김영환IG 김영환IH  
김영환IH 김영환IH 김영환II  
김영환II 김영환II 김영환IJ  
김영환IJ 김영환IJ 김영환IK  
김영환IK 김영환IK 김영환IL  
김영환IL 김영환IL 김영환IM  
김영환IM 김영환IM 김영환IN  
김영환IN 김영환IN 김영환IO  
김영환IO 김영환IO 김영환IP  
김영환IP 김영환IP 김영환IQ  
김영환IQ 김영환IQ 김영환IR  
김영환IR 김영환IR 김영환IS  
김영환IS 김영환IS 김영환IT  
김영환IT 김영환IT 김영환IU  
김영환IU 김영환IU 김영환IV  
김영환IV 김영환IV 김영환IW  
김영환IW 김영환IW 김영환IX  
김영환IX 김영환IX 김영환IY  
김영환IY 김영환IY 김영환IZ  
김영환IZ 김영환IZ 김영환JA  
김영환JA 김영환JA 김영환JB  
김영환JB 김영환JB 김영환JC  
김영환JC 김영환JC 김영환JD  
김영환JD 김영환JD 김영환JE  
김영환JE 김영환JE 김영환JF  
김영환JF 김영환JF 김영환JG  
김영환JG 김영환JG 김영환JH  
김영환JH 김영환JH 김영환JI  
김영환JI 김영환JI 김영환JJ  
김영환JJ 김영환JJ 김영환JK  
김영환JK 김영환JK 김영환JL  
김영환JL 김영환JL 김영환JM  
김영환JM 김영환JM 김영환JN  
김영환JN 김영환JN 김영환JO  
김영환JO 김영환JO 김영환JP  
김영환JP 김영환JP 김영환JQ  
김영환JQ 김영환JQ 김영환JR  
김영환JR 김영환JR 김영환JS  
김영환JS 김영환JS 김영환JT  
김영환JT 김영환JT 김영환JU  
김영환JU 김영환JU 김영환JV  
김영환JV 김영환JV 김영환JW  
김영환JW 김영환JW 김영환JX  
김영환JX 김영환JX 김영환JY  
김영환JY 김영환JY 김영환JZ  
김영환JZ 김영환JZ 김영환KA  
김영환KA 김영환KA 김영환KB  
김영환KB 김영환KB 김영환KC  
김영환KC 김영환KC 김영환KD  
김영환KD 김영환KD 김영환KE  
김영환KE 김영환KE 김영환KF  
김영환KF 김영환KF 김영환KG  
김영환KG 김영환KG 김영환KH  
김영환KH 김영환KH 김영환KI  
김영환KI 김영환KI 김영환KJ  
김영환KJ 김영환KJ 김영환KK  
김영환KK 김영환KK 김영환KL  
김영환KL 김영환KL 김영환KM  
김영환KM 김영환KM 김영환KN  
김영환KN 김영환KN 김영환KO  
김영환KO 김영환KO 김영환KP  
김영환KP 김영환KP 김영환KQ  
김영환KQ 김영환KQ 김영환KR  
김영환KR 김영환KR 김영환KS  
김영환KS 김영환KS 김영환KT  
김영환KT 김영환KT 김영환KU  
김영환KU 김영환KU 김영환KV  
김영환KV 김영환KV 김영환KW  
김영환KW 김영환KW 김영환KX  
김영환KX 김영환KX 김영환KY  
김영환KY 김영환KY 김영환KZ  
김영환KZ 김영환KZ 김영환LA  
김영환LA 김영환LA 김영환LB  
김영환LB 김영환LB 김영환LC  
김영환LC 김영환LC 김영환LD  
김영환LD 김영환LD 김영환LE  
김영환LE 김영환LE 김영환LF  
김영환LF 김영환LF 김영환LG  
김영환LG 김영환LG 김영환LH  
김영환LH 김영환LH 김영환LI  
김영환LI 김영환LI 김영환LJ  
김영환LJ 김영환LJ 김영환LK  
김영환LK 김영환LK 김영환LL  
김영환LL 김영환LL 김영환LM  
김영환LM 김영환LM 김영환LN  
김영환LN 김영환LN 김영환LO  
김영환LO 김영환LO 김영환LP  
김영환LP 김영환LP 김영환LQ  
김영환LQ 김영환LQ 김영환LR  
김영환LR 김영환LR 김영환LS  
김영환LS 김영환LS 김영환LT  
김영환LT 김영환LT 김영환LU  
김영환LU 김영환LU 김영환LV  
김영환LV 김영환LV 김영환LW  
김영환LW 김영환LW 김영환LX  
김영환LX 김영환LX 김영환LY  
김영환LY 김영환LY 김영환LZ  
김영환LZ 김영환LZ 김영환MA  
김영환MA 김영환MA 김영환MB  
김영환MB 김영환MB 김영환MC  
김영환MC 김영환MC 김영환MD  
김영환MD 김영환MD 김영환ME  
김영환ME 김영환ME 김영환MF  
김영환MF 김영환MF 김영환MG  
김영환MG 김영환MG 김영환MH  
김영환MH 김영환MH 김영환MI  
김영환MI 김영환MI 김영환MJ  
김영환MJ 김영환MJ 김영환MK  
김영환MK 김영환MK 김영환ML  
김영환ML 김영환ML 김영환MN  
김영환MN 김영환MN 김영환MO  
김영환MO 김영환MO 김영환MP  
김영환MP 김영환MP 김영환MQ  
김영환MQ 김영환MQ 김영환MR  
김영환MR 김영환MR 김영환MS  
김영환MS 김영환MS 김영환MT  
김영환MT 김영환MT 김영환MU  
김영환MU 김영환MU 김영환MV  
김영환MV 김영환MV 김영환MW  
김영환MW 김영환MW 김영환MX  
김영환MX 김영환MX 김영환MY  
김영환MY 김영환MY 김영환MZ  
김영환MZ 김영환MZ 김영환NA  
김영환NA 김영환NA 김영환NB  
김영환NB 김영환NB 김영환NC  
김영환NC 김영환NC 김영환ND  
김영환ND 김영환ND 김영환NE  
김영환NE 김영환NE 김영환NF  
김영환NF 김영환NF 김영환NG  
김영환NG 김영환NG 김영환NH  
김영환NH 김영환NH 김영환NI  
김영환NI 김영환NI 김영환NJ  
김영환NJ 김영환NJ 김영환NK  
김영환NK 김영환NK 김영환NL  
김영환NL 김영환NL 김영환NM  
김영환NM 김영환NM 김영환NN  
김영환NN 김영환NN 김영환NO  
김영환NO 김영환NO 김영환NP  
김영환NP 김영환NP 김영환NQ  
김영환NQ 김영환NQ 김영환NR  
김영환NR 김영환NR 김영환NS  
김영환NS 김영환NS 김영환NT  
김영환NT 김영환NT 김영환NU  
김영환NU 김영환NU 김영환NV  
김영환NV 김영환NV 김영환NW  
김영환NW 김영환NW 김영환NX  
김영환NX 김영환NX 김영환NY  
김영환NY 김영환NY 김영환NZ  
김영환NZ 김영환NZ 김영환OA  
김영환OA 김영환OA 김영환OB  
김영환OB 김영환OB 김영환OC  
김영환OC 김영환OC 김영환OD  
김영환OD 김영환OD 김영환OE  
김영환OE 김영환OE 김영환OF  
김영환OF 김영환OF 김영환OG  
김영환OG 김영환OG 김영환OH  
김영환OH 김영환OH 김영환OI  
김영환OI 김영환OI 김영환OJ  
김영환OJ 김영환OJ 김영환OK  
김영환OK 김영환OK 김영환OL  
김영환OL 김영환OL 김영환OM  
김영환OM 김영환OM 김영환ON  
김영환ON 김영환ON 김영환OO  
김영환OO 김영환OO 김영환OP  
김영환OP 김영환OP 김영환OQ  
김영환OQ 김영환OQ 김영환OR  
김영환OR 김영환OR 김영환OS  
김영환OS 김영환OS 김영환OT  
김영환OT 김영환OT 김영환OU  
김영환OU 김영환OU 김영환OV  
김영환OV 김영환OV 김영환OW  
김영환OW 김영환OW 김영환OX  
김영환OX 김영환OX 김영환OY  
김영환OY 김영환OY 김영환OZ  
김영환OZ 김영환OZ 김영환PA  
김영환PA 김영환PA 김영환PB  
김영환PB 김영환PB 김영환PC  
김영환PC 김영환PC 김영환PD  
김영환PD 김영환PD 김영환PE  
김영환PE 김영환PE 김영환PF  
김영환PF 김영환PF 김영환PG  
김영환PG 김영환PG 김영환PH  
김영환PH 김영환PH 김영환PI  
김영환PI 김영환PI 김영환PJ  
김영환PJ 김영환PJ 김영환PK  
김영환PK 김영환PK 김영환PL  
김영환PL 김영환PL 김영환PM  
김영환PM 김영환PM 김영환PN  
김영환PN 김영환PN 김영환PO  
김영환PO 김영환PO 김영환PP  
김영환PP 김영환PP 김영환PQ  
김영환PQ 김영환PQ 김영환PR  
김영환PR 김영환PR 김영환PS  
김영환PS 김영환PS 김영환PT  
김영환PT 김영환PT 김영환PU  
김영환PU 김영환PU 김영환PV  
김영환PV 김영환PV 김영환PW  
김영환PW 김영환PW 김영환PX  
김영환PX 김영환PX 김영환PY  
김영환PY 김영환PY 김영환PZ  
김영환PZ 김영환PZ 김영환QA  
김영환QA 김영환QA 김영환QB  
김영환QB 김영환QB 김영환QC  
김영환QC 김영환QC 김영환QD  
김영환QD 김영환QD 김영환QE  
김영환QE 김영환QE 김영환QF  
김영환QF 김영환QF 김영환QG  
김영환QG 김영환QG 김영환QH  
김영환QH 김영환QH 김영환QI  
김영환QI 김영환QI 김영환QJ  
김영환QJ 김영환QJ 김영환QK  
김영환QK 김영환QK 김영환QL  
김영환QL 김영환QL 김영환QM  
김영환QM 김영환QM 김영환QN  
김영환QN 김영환QN 김영환QO  
김영환QO 김영환QO 김영환QP  
김영환QP 김영환QP 김영환QQ  
김영환QQ 김영환QQ 김영환QR  
김영환QR 김영환QR 김영환QS  
김영환QS 김영환QS 김영환QT  
김영환QT 김영환QT 김영환QU  
김영환QU 김영환QU 김영환QV  
김영환QV 김영환QV 김영환QW  
김영환QW 김영환QW 김영환QX  
김영환QX 김영환QX 김영환QY  
김영환QY 김영환QY 김영환QZ  
김영환QZ 김영환QZ 김영환RA  
김영환RA 김영환RA 김영환RB  
김영환RB 김영환RB 김영환RC  
김영환RC 김영환RC 김영환RD  
김영환RD 김영환RD 김영환RE  
김영환RE 김영환RE 김영환RF  
김영환RF 김영환RF 김영환RG  
김영환RG 김영환RG 김영환RH  
김영환RH 김영환RH 김영환RI  
김영환RI 김영환RI 김영환RJ  
김영환RJ 김영환RJ 김영환RK  
김영환RK 김영환RK 김영환RL  
김영환RL 김영환RL 김영환RM  
김영환RM 김영환RM 김영환RN  
김영환RN 김영환RN 김영환RO  
김영환RO 김영환RO 김영환RP  
김영환RP 김영환RP 김영환RQ  
김영환RQ 김영환RQ 김영환RR  
김영환RR 김영환RR 김영환RS  
김영환RS 김영환RS 김영환RT  
김영환RT 김영환RT 김영환RU  
김영환RU 김영환RU 김영환RV  
김영환RV 김영환RV 김영환RW  
김영환RW 김영환RW 김영환RX  
김영환RX 김영환RX 김영환RY  
김영환RY 김영환RY 김영환RZ  
김영환RZ 김영환RZ 김영환SA  
김영환SA 김영환SA 김영환SB  
김영환SB 김영환SB 김영환SC  
김영환SC 김영환SC 김영환SD  
김영환SD 김영환SD 김영환SE  
김영환SE 김영환SE 김영환SF  
김영환SF 김영환SF 김영환SG  
김영환SG 김영환SG 김영환SH  
김영환SH 김영환SH 김영환SI  
김영환SI 김영환SI 김영환SJ  
김영환SJ 김영환SJ 김영환SK  
김영환SK 김영환SK 김영환SL  
김영환SL 김영환SL 김영환SM  
김영환SM 김영환SM 김영환SN  
김영환SN 김영환SN 김영환SO  
김영환SO 김영환SO 김영환SP  
김영환SP 김영환SP 김영환SQ  
김영환SQ 김영환SQ 김영환SR  
김영환SR 김영환SR 김영환SS  
김영환SS 김영환SS 김영환ST  
김영환ST 김영환ST 김영환SU  
김영환SU 김영환SU 김영환SV  
김영환SV 김영환SV 김영환SW  
김영환SW 김영환SW 김영환SX  
김영환SX 김영환SX 김영환SY  
김영환SY 김영환SY 김영환SZ  
김영환SZ 김영환SZ 김영환TA  
김영환TA 김영환TA 김영환TB  
김영환TB 김영환TB 김영환TC  
김영환TC 김영환TC 김영환TD  
김영환TD 김영환TD 김영환TE  
김영환TE 김영환TE 김영환TF  
김영환TF 김영환TF 김영환TG  
김영환TG 김영환TG 김영환TH  
김영환TH 김영환TH 김영환TI  
김영환TI 김영환TI 김영환TJ  
김영환TJ 김영환TJ 김영환TK  
김영환TK 김영환TK 김영환TL  
김영환TL 김영환TL 김영환TM  
김영환TM 김영환TM 김영환TN  
김영환TN 김영환TN 김영환TO  
김영환TO 김영환TO 김영환TP  
김영환TP 김영환TP 김영환TQ  
김영환TQ 김영환TQ 김영환TR  
김영환TR 김영환TR 김영환TS  
김영환TS 김영환TS 김영환TT  
김영환TT 김영환TT 김영환TU  
김영환TU 김영환TU 김영환TV  
김영환TV 김영환TV 김영환TW  
김영환TW 김영환TW 김영환TX  
김영환TX 김영환TX 김영환TY  
김영환TY 김영환TY 김영환TZ  
김영환TZ 김영환TZ 김영환UA  
김영환UA 김영환UA 김영환UB  
김영환UB 김영환UB 김영환UC  
김영환UC 김영환UC 김영환UD  
김영환UD 김영환UD 김영환UE  
김영환UE 김영환UE 김영환UF  
김영환UF 김영환UF 김영환UG  
김영환UG 김영환UG 김영환UH  
김영환UH 김영환UH 김영환UI  
김영환UI 김영환UI 김영환UJ  
김영환UJ 김영환UJ 김영환UK  
김영환UK 김영환UK 김영환UL  
김영환UL 김영환UL 김영환UM  
김영환UM 김영환UM 김영환UN  
김영환UN 김영환UN 김영환UO  
김영환UO 김영환UO 김영환UP  
김영환UP 김영환UP 김영환UQ  
김영환UQ 김영환UQ 김영환UR  
김영환UR 김영환UR 김영환US  
김영환US 김영환US 김영환UT  
김영환UT 김영환UT 김영환UU  
김영환UU 김영환UU 김영환UV  
김영환UV 김영환UV 김영환UW  
김영환UW 김영환UW 김영환UX  
김영환UX 김영환UX 김영환UY  
김영환UY 김영환UY 김영환UZ  
김영환UZ 김영환UZ 김영환VA  
김영환VA 김영환VA 김영환VB  
김영환VB 김영환VB 김영환VC  
김영환VC 김영환VC 김영환VD  
김영환VD 김영환VD 김영환VE  
김영환VE 김영환VE 김영환VF  
김영환VF 김영환VF 김영환VG  
김영환VG 김영환VG 김영환VH  
김영환VH 김영환VH 김영환VI  
김영환VI 김영환VI 김영환VJ  
김영환VJ 김영환VJ 김영환VK  
김영환VK 김영환VK 김영환VL  
김영환VL 김영환VL 김영환VM  
김영환VM 김영환VM 김영환VN  
김영환VN 김영환VN 김영환VO  
김영환VO 김영환VO 김영환VP  
김영환VP 김영

## “교회 소유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Announcement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배경을 성도님들과  
투명하게 나누고자 함입니다.

### ▶매각 추진 배경 및 취지

첫째, 저효율 부동산은 교회 사역과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활용 용도가 거의  
없어 사역을 위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저효율 부동산은 자산가치 대비 높은  
관리비(세금 포함)로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교회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사역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 ▶매각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씀

첫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져 왔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효율부동산의 매각은 “자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매각이 교회의 자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적 안정만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회와 재정위원회, 기타 전문가들의  
검토와 기도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셋째, 모든 매각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온전하게  
진행되어 위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선교재단 & 복지재단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

#### [매각 입찰 공고 물건]

- 물건 1.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89외 27필지, 건물 2개동
- 물건 2.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234외 27필지, 건물 5개동
- 물건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00외 1필지
- 물건 4.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049-1외 2필지, 건물 2개동

- ▶매각 입찰 일정 : 공고 25.12.06 ~ 26.02.06 / 입찰서제출 26.02.03 ~ 26.02.06
- ▶매각 세부 절차 및 명세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조
- ▶매각 주관 : 온누리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일반 문의 :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팀 (02-3215-3134, 3136)